

장마 끝! 레저·캠핑용품 불티

아웃도어·코펠 등 전년보다 매출 30% 이상 늘어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레저·캠핑용품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자동차를 이용한 캠핑) 붐이 일고 있는데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텐트를 이용해 휴가철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한 '알뜰 캠핑' 쪽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의류와 캠핑용품(침낭·텐트·코펠 등)의 매출은 올해 들어 급증 추세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3대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와 K2, 컬럼비아의 매출 신장률은 7월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 40%, 14%나 늘었다.

2010년 10%, 18%, 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출 신장률이 가파르다. 특히 이른 장마가 끝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전년 대비 39%, 57%, 35%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스포츠의류와 용품도 이달 들어 전년 대비 18%, 5% 매출이 올랐으며 수영복은 17%나 판매가 뛰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아웃도어 의류 매출 신장률도 이달 들어 11% 이상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 2009년 2%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캠핑용품 판매도 꾸준히 늘어 이들 용품의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나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증가 주

세가 더 뚜렷하다.

롯데닷컴(www.lotte.com)의 캠핑 용품 7월 첫째 주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폴베아, 자랄 등 설치가 간편한 자동텐트와 4인용 이상의 패밀리용 텐트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다.

옥션(www.auction.co.kr) 역시 7월 첫째 주 캠핑용품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7% 이상 성장했다. 인터파크(www.interpark.com)에서도 최근 일주일 간 캠핑용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잘 팔리는 상품은 아이디어 캠핑용품들이다. 보온성을 높인 민들레침낭과 야외에서 샤워를 할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캠핑시즌을 맞아 최근 6층 아웃도어 매장에 텐트와 코펠 바비큐 화로 등 다양한 캠핑용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핑존을 설치했다.

수 있는 캠프샤워, 자가발전 랜턴 등이 인기가 높다.

이마트 광천점 관계자는 "전남지역에 만휴캠핑 등을 합쳐 오토캠핑장이 15곳

에 이를 정도로 확장 추세에 있는데다 캠핑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용품에 대한 문의와 판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복기자 exian@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신용평가 시장 불안 자극

보험 등 내수주 관심 필요

글로벌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KOSPI의 변동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00선을 바라보던 KOSPI는 주중에 90포인트 가량의 조정을 거치면서 2100선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을 보이고 난 후, 주 후반 들어서는 추세 복귀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였다. 이탈리아로까지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부채한도 조정협상 지연에 따른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등이 여전히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저점을 더 단단히 다져나가는 흐름으로 연결됐지만 다음에는 어디에서 누가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신용리스크로 인해 하반기 G2(미국·중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을 낮출 필요는 없어 보인다. 7월 이후 일본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면서 미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경우에도 긴축의 막바지를 넘어 하반기에는 내수 중심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종목별 움직임의 특징은 크게 내수주들의 차별적인 상승세, 대형주대비 중소형주의 강세, 턴어라운드 업종에 대한 시장관심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배경은 글로벌 신용리스크와 경기전망 변화에 민감한 자동차, 화학, IT 등 수출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민감도가 낮고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음식료, 유통, 의류 등 중소형 내수주가 투자자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원화강세 흐름에서의 상대적인 이점과 하반기 중국 소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내수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내수주의 강세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들은 정치적인 이슈의 측면이 강하다. 이는 곧 이벤트 성격의 리스크라는 이야기이며 현 시점이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오히려 해결안이 도출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불확실성이 겹치면 가려져 있던 경기와 실적 모멘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다시 '썰매릴라'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자동차, 보험 업종과 주요 내수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1돈 = 21만7800원... 금값 또 사상 최고

국제가 1온스 1천600불 임박... 당분간 상승세 이어질듯

국내 금값이 16일 이틀 전에 세운 최고치를 깨고 또 올랐다.

한국금거래소(Korea Gold Exchange)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소매가는 3.75g(1돈)에 21만7천8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전날보다 600원 올랐다.

앞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기가 계속 둔화하고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낮으면 행동에 나서 준비가 돼 있다는 자신의 발언이 '3차 양적완화' 가능성으로 이해되자 14일(미국 시각) "현시점에서 추가 조치는 준

비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한국시각으로 15일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8월물 금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트로이 온스당 6.80달러(0.43%) 하락한 1582.50달러를 나타내는 등 시세가 잠시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금 투자 심리를 부추겼고 금값 상승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시각으로 15일

오후 5시14분 뉴욕상품거래소의 금 거래가는 최고치인 트로이 온스당 1594.50 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금거래소 최은규 부사장은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등이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는 등 미국발 악재에 대해 미국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양적 완화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정부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금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 "국제 금 가격이 일단 투자자의 심리적 저항선인 1600달러를 넘으면 1600달러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韓·EU FTA 효과' 수출입 증가

교역확대 견인... 전년보다 수출 19%·수입 16% 늘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발효된 이후 보름간 양측의 수출입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3일간 대 EU 수출액은 14억8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9%, 수입은 16억5000만달러로 16% 각각 늘었다.

관세청은 EU의 재정위기 확산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FTA가 교역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원래 무관세인 품목을 제외한 FTA 활용가능 수출입액 가운데 실제 FTA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을 의미하는 '한·EU FTA 수출입 활용률'은 수출 55%, 수입 13%였다.

이는 지난해 기준 한·아세안(29% : 68%), 한·인도(17.7% : 45.8%) 등 우리나라가 체결

한 다른 FTA와 비교할 때 수출활용률이 높은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초 협상단계에서 품목 수를 기준으로 우리측에 유리한 관세 철폐의 무이행에 합의했고, 발효 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홍보와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 완료 등 대비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효초기 수출 활용률도 한·아세안(3.5%), 한·인도(17.7%)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한·EU FTA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한·EU FTA의 성과를 위해 앞으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하반기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금값, 기록 경신

국내 금값이 16일 이틀 전에 세운 최고치를 깨고 상승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에서 한 상인이 금 제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금거래소(Korea Gold Exchange)에 따르면 16일 국내 금 소매가는 3.75g(1돈)에 21만78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전날보다 600원 올랐다. /연합뉴스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돈**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태양광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공인식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의 통한 중장기 수출역량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 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용량(사용전력량:KWh)	설치시 청구요금	월요금
80원(약 4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0원(약 40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0원(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0원(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0원(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99,400원
250원(약 680KWh)일 때	약 46,000원	약 202,000원
300원(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정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 062-512-1180 / H.P 011-659-7001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원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정직영 / 원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칼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